대학생들의 IMF 전후 돈 관련 태도와 행동 차이

- '95년과 2000년 대학생 비교 -

동 환 숙(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 정 훈(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1998년 IMF 상황을 겪으면서 지속된 경제적 곤란은 개인과 가계,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돈과 관련된 신념(가치와)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IMF 상황 전후의 개인의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원광대학교 남녀 학생들로서 1995년 389명(여학생 202명, 남학생 187명), 2000년 112명(여학생 72명, 남학생 40명)이 조사되었다. 조사도구는 Furham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로서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 수준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금전관리행동에 대한 태도는 다른 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낮았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4개 돈에 대한 하위영역 모두 태도 값이 높아졌다. Management(+0.63)와 Pleasure(+1.26)와 같은 돈에 대한 실제적 태도의 변화량이 Power(+0.46)와 Obsession(+0.29)과 같은 인식적 태도의 변화량 보다 적었다.

IMF이후 경제적 침체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인식적 태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돈에 대한 걱정 등 강박적 태도를 갖는 정도는 높다. 그러나 중간정도 수준이었던 예산, 저축, 수행 등 금전관리행동의 수준이 상당 수준 높아졌으며, 그 변화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컸다. 현재의 경제적 곤란과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관리행동에 대해 요구하게 되고, 실행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오락성 평균값의 변화량 증가가 가장 크고, 또 높은 값을 보인 것은 학생들의 욕구 충족과 충동성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원인들에 따른 금전관리에서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가능성과 우려를 낳는다.

〈표 1〉 조사대상들의 MBBS 평균 비교

	전체 조사대상			여 학 생			남 학 생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1995년	
Power	2.52	2.06	****	2.55	1.91		2.50	2.23	**
Money Mgt.	4.71	4.08	****	4.59	3.68		4.78	4.03	****
Obsession	4.17	3.85	***	4.18	4.00		4.12	3.77	
Pleasure	4.34	3.08	****	4.23	3.44		4.41	3.35	****

*p<.10, **p<.05, ***p<.01, ****p<.001